

## 12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⑯ 서정범『우리말의 뿌리』



우리말의 뿌리를 알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진=언스플래쉬)



서정범『우리말의 뿌리』(사진=보고사 제공)

# ‘우리말의 뿌리’ 앞에서

조 현 용  
국제교육원 교수

한국어 비전공자에게 한국어 관련 전공 도서를 소개한다면 어떤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했다. 일단은 어렵지 않은 책이면 좋겠고, 다른 분야의 전공자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자 고민은 끝이 났다. 우리학교에서 국어학에 가장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분은 국어국문학과 서정범 명예교수이다.

서정범 교수는 국어학자이지만 민속학, 무속, 수필을 비롯한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도 널리 알려진 학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출판한『일본어의 원류를 거슬러 오르다』,『한국의 샤머니즘』,『한국어로 읽은 고사기』 등은 일본 학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저서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할 만한 책은『우리말의 뿌리』이다. 이 책은 그야말로 저자 연구의 집대성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저자의 어원론을 정리한『국어어원사전』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단어의 어원을 찾고 싶은 분께는 이 사전을 권한다.

『우리말의 뿌리』는 우리말의 조상

말, 즉 조어를 재구하는 원리를 밝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어휘의 구성과 소통하는 근원에는 늘 저자가 있었다. 저자를 생각할 때마다 시베리아, 바이칼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말의 뿌리를 떠올린다.

저자는 강의 시간에 시베리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다. 시베리아의 브리야트 등 언어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샤먼을 비롯한 문화 이야기도 넘쳐났다. 우리 문화와 가장 닮아있는 곳이라는 설명에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그때마다 정점을 이루는 이야기는 북두칠성이었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북두칠성이 빛나는 곳에 우리 조상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와의 비교에서 1대 1 대응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 언어의 어휘가 1대 1로 대응하지 않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우리말의 뿌리』는 우리말의 신체어, 천체어, 인칭어, 물 관계어, 지리어, 색채어, 식물어, 동물어, 종교, 수사 등을 알타이 제어, 일본어, 아이누어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우리말의 어원을 찾기 위해 원시인의 사고를 궁금해했다. 사고의 원류를 찾기 위해 무속과 민속을 연구했다. 이러한 경험을 대중과 나누기 위해 수필로 내보였다.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던 수필 ‘미리내’ 등은 저자와 세상이 만나는 통로였다. 나는 저자에게 어원을 배우고, 조상의 사고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됐다. 내가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근원에는 늘 저자가 있었다. 저자를 생각할 때마다 시베리아, 바이칼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말의 뿌리를 떠올린다.

저자는 강의 시간에 시베리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다. 시베리아의 브리야트 등 언어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샤먼을 비롯한 문화 이야기도 넘쳐났다. 우리 문화와 가장 닮아있는 곳이라는 설명에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그때마다 정점을 이루는 이야기는 북두칠성이었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북두칠성이 빛나는 곳에 우리 조상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북두칠성과 관련된 이야기와 유적이 많은 것은 모두 북두칠성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이다. 예전에 어머니는 새벽에 정화수를 떠 놓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칠성님께 빌었다. 절에 가면 칠성각을 찾아 빌고 또 빌었다. 사람이 죽으면 관 속 칠성판에 누여 북두칠성으로 떠나보냈다. 우리가 칠성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북두칠성을 조상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두칠성 아래 바이칼 호수를 떠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의 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이동의 시작을 바이칼 호수 주변으로 본다. 민족의 DNA를 비교 연구하는 학자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언어적으로도 바이칼 주변 언어와 한국어는 공통점이 많다. 샤먼을 비롯한 전통

의 생사를 모르기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혹시 살아 계실 수도 있는데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산가족의 절절한 아픔이다. 살아계시기를 바리지만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괴로움이 함께 있는 것이다. 칠순의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일 것이다.

저자는 제사를 지낸다면 첫 제사는 바이칼 호수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다. 거기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가실 곳은 바로 북두칠성 아래였을 테다. 저자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텔레비전으로도 방영됐다. 상복을 입고, 어머니를 부르는 저자의 눈에서는 하염 없이 눈물이 흘렀다. 생사를 모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괴로움은 북두칠성 아래에서 호수가 되었을 것이다. 바이칼 호수가 바다와 같다는 말이 이제 더 깊이 이해가 된다.

저자는 시베리아에 다녀와서 내게 선물을 전했다. 바이칼 호수에서 채취한 들꽃을 하얀 종이 위에 붙이고 글을 쓴 것이었다. 좋은 선물이었다. 선물에 이야기와 기억이 담기면 생명력을 얻는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선물을 꺼내 본다. ‘시베리아 북두칠성 아래에서 1995. 7. 12 서정범’. 저자는 이제 여기에 없지만, 북두칠성에서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있을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꼭 북두칠성 아래에 가 보려고 한다. 아마도 바이칼 호수에서 저자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의 뿌리』를 읽고,『국어어원사전』을 찾으면서 인간의 사고와 우리의 뿌리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조상을 만나고,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우리말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다.

종교적 풍습도 닮았다. 무엇보다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북두칠성의 흔적은 우리의 기원을 바이칼 호수 가로 이끈다.

바이칼에서 민족의 이동이 시작되었다면 북두칠성은 고향의 상징이 된다. 고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북두칠성은 조상의 모습으로 빛이 났을 것이다. 그대로 칠성은 신앙이 되고, 죽으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됐을 것이다. 북두칠성에 가면 조상을 만날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과 기쁜 해후가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것이다.

1995년 저자는 칠순이었다. 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자는 걱정이 하니 있었다. 북에 남기고 온 어머니

**2022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구분	과정	전공	인원			
서울 캠퍼스	양성 과정	국어교육 미술교육 생활교육 역사교육 음악교육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물리교육 상업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영문교육 상담심리 화학교육			
		교육방법 및 리더십 제교육 과정	교육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OO명		
		국제 캠퍼스	양성 과정	수학교육 체육교육 중국어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디자인교육	
				교사리더십 과정	교사리더십 실용음악교육	평생교육
				교육정책 및 리더십 제교육 과정	교육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OO명
				교육방법 및 리더십 제교육 과정	교육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OO명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2.04.18(월) 10:00 부터 2022.04.25(월) 17:00 까지
지원자격 부족 및 미선발 전공자 통보	2022.05.17(화) 15:00
전형장소 공고	2022.05.19(목) 15:00
면접고사	2022.05.21(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06.17(금) 15:00
합격자 등록	2022.07.04(월) ~ 07.08(금) 16:00

**관련페이지**

모집요강보기 : <https://edu.khu.ac.kr>  
온라인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교육대학원(서울C) : 02-961-0135~6  
교육대학원(국제C) : 031-201-2021~2